



공장 내부야말로 이익을 만들어내는 원천(源泉)이 있다

鈴木 了 / 大和그라비아(주) 임원 · (주)DG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 지 만 / 화신기계공업(주) 기획실장

본고는 일본 大和그라비아(주) 임원이자 (주)DG엔지니어링 대표이사인 鈴木 了 씨가 일본 포장 타임지에 연속으로 기재한 칼럼으로 화신기계공업(주) 김지만 기획실장이 번역했다. 본고를 통해 일본 포장 업계 현황을 살펴보고, 그라비아 인쇄 업계에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편집자 주 -

⑦ 중요한 「보전기능향상(保全技能向上)」

조직상, 책임과 권한을 명백히 한 생산관리방법을 재구축한다.

요컨대 이제부터는 “집중과 선택의 한가지의 커다란 갈림길에 놓이지 않을까?”라고 사려된다.

자동차, 가전업계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순조롭게 등급(Grade)을 올린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집약(集約), 등급을 줄이는 일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니다.

우리의 그라비아 업계는 항상 음식점 혹은, 작은 식당처럼 일품 요리를 만들고 있다. 이것이 규격품을 만드는 패밀리 레스토랑, 편의점과는 다른 점이다. 손님은 결코 신이 아니다.

생산 현장에 디자이너가 입회 참석하러 온다

면 힘겨운 일이 될 것이다. 어떤 대기업의 컨버터(Converter) 생산 라인에서 아침 일찍부터 입회한 것이 오후 4시가 되어도 아직 OK 사인이 나오지 않은 적도 있었다.

「오늘은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원고와 다르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한 번에 OK 사인이 나왔을 때 「이것을 가지고 돌아갈 수 없다. 지금부터 색을 바꿔가면서 몇 종류를 인쇄 해 주십시오」 혹은, 몇 점이나 인쇄 입회한 후에 「내가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 동안, 기계는 멈춰 있지만 돈은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일에도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도 그라비아 프린터, 컨버터에 있어서 큰 리스크가 된다.

당사는 고객(User)의 입회를 1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2시간 걸려도 3시간 걸려도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1시간에 최소 4회에서 5회 입회실에 지정된 색을 맞춘 인쇄 견본을 가지고 갈 수 있다.

목표관리와 진척도를 결과로 보고 있는 회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은 아닌가?

새해가 되어서 「흑자이다」 혹은, 「적자이다」고 떠들썩하지만, 이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지”라는 것은 때늦은 것이다.

4분기의 진척도로부터 재검토를 하는 것이 본래의 자세는 아닐까?

반년이 지나고 나서 좋다 나쁘다 하고, 어떻게 할까 헤매고 있는 동안에 새로운 분기가 시작되어 버린다.

만성 로스의 설비 결함, 이것을 기계의 문제, 전기의 문제, 장력(Tension)의 문제, 혹은 잉크와 재료의 문제라고 말한다.

타력본원(他力本願 - “다른 사람이 대신 해결해 주겠지”라는 마음가짐)에 의해 자신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은 아닐까?

스태프(Staff)과 오퍼레이터(Operator)는 공정을 교환하는 것이 그들의 첫째 임무이다.

문제가 발생해서 라인이 멈추었을 때 어떻게 해서든 단시간에 다음 작업을 연결하는 것이 그 중요한 한가지 업무이다. 또 다른 하나는 품질은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일뿐이다. 그 때문에 직원의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이 훈련 중에서 오퍼레이터와 스태프가 가지고 있는 보전기능(保全技能)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트러블로 인한 고장을 고쳤다.

“무엇이 문제여서 고장이 발생했고, 어떻게 해서 고쳤다”라는 것을 오퍼레이터가 알고 있다면 다음에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인위적 로스,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에러(Human error)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머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배가 이플 때 사람은 아픈 곳에 꼭 손을 대고 있다. 하지만, 작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손을 보지 않는 것인가?

자동차의 엔진을 작동시켜서 이상한 소리가 날 때, 이대로 주행하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차한다. 그렇지만 품질, 효율, 생산성에 있어서는 그러한 대처를 하고 있지는 않는다.

기계에 이상한 소리가 발생해도 「책임자가 올 때까지는 괜찮겠지」 그러는 동안에 만나질, 하루 종일 기계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기계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구입한 것으로, 가동되지 않거나 고치거나 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은 아니다. 가능하면 24시간 365일 작동해야 한다. ㉒

신제품 및 업체 소개

월간 포장계 편집실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